

이사의 선관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외사법

이사는 회사의 수입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상법 제399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01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는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그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다.

법원은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미법상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의 법리를 일부 인용해 기준으로 삼는다. 위 원칙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경영적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경우 비록 그 판단이 후일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어느 정도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또 그 권한 내에서 이뤄졌다고 할만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그 경영적 판단의 당부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개입해 이사의 성

실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 내용과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취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 관련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다. 또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

해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지만”이라고 판시해 경영판단의 원칙 법리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이 확립된 법리에 기초해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부실대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전 대표이사인 피고는 채권회수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단지 수익성이 높은 대출로서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대출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바른

오늘의 운세 6월 21일 (음 5월 12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원하는 문서를 얻으니 감사. 48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60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가득 메우듯 기쁨이 넘치는 날. 72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본다. 84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모임장소에서 행동주의.
- 소** 37년생 마음 씀이 다른 운도 다르게 된다. 49년생 자식 자랑할 일이 많아 즐겁다. 61년생 길 떠나려는데 천둥이 치니 출발해야 하나 고민. 73년생 지나간 인연이 생각나니 서글프다. 85년생 넓게 바라보면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보임.
- 호랑이** 38년생 타고난 성격을 바꿔보자. 50년생 가족이라도 지나친 간섭은 피하는 게 좋다. 62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계약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86년생 인생은 체험에 의해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 토끼** 39년생 겸손하고 하심하면 운세도 향상. 51년생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법. 63년생 검은 구름이 서서히 가시고 밝게 개이니 좋은 날. 75년생 아랫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면 새로운 일이 있다. 87년생 고뇌의 사슬이 얽히고설키니 어찌라.
- 염** 40년생 계속 피곤이 누적되면 명상을 해보자. 52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덜 힘들다는 걸. 64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게 맺는다. 76년생 삼각관계에서 벗어나 후련하다. 88년생 부자와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데.
- 뱀** 41년생 가정화목을 위해 애쓴 결과로 평운을 얻었다. 53년생 둘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가라. 65년생 역사는 돌고 돈다. 77년생 술자리를 가지 않았는데 취한 것 같다. 89년생 지나친 음주는 건강뿐 아니라 친구 사이도 멀어진다.
- 말** 42년생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안타깝다. 54년생 일이 많아지고 줄지를 않는다. 66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꾸준히 노력. 7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탐하지 마라. 90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서 기대만큼 성과도 최고다.
- 양** 43년생 사는 것은 지혜를 겸비해야 할 터. 55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할 터. 67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성사되니 만남을 중시 여겨라. 79년생 앞서는 것이 타인의 시기를 받을 수 있다. 91년생 발전이 느리니 현상유지가 우선.
- 원숭이** 44년생 아침마다 출근 시간이 기다려진다. 56년생 기회가 주어저도 망설임이 많을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68년생 배우자와 다른 사람에게 관심가지지 마라. 80년생 검은 옷 입을 수. 92년생 형제간의 다툼이 당파싸움을 능가할 정도다.
- 닭** 45년생 경청이란 귀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 57년생 흘러가는 대로 유유히 하루를 보내자. 69년생 돈 앞에서 후안무척의 시늉. 81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 93년생 꿈을 얻고 싶다면 별됨을 먼저 마련하도록.
- 개** 46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이다. 58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70년생 축소는 비 온 뒤 더 잘 자라니 고난을 참을 것. 82년생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94년생 주장이 너무 강한 것은 아닌지 살펴라.
- 돼지** 47년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친다. 59년생 배우자에게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기니 행복. 71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동료와 사이좋게 지내라. 83년생 꿈수와 잔 재주를 주의. 95년생 교통의 촉을 이루는 건 자동차와 동시에 사람이야.

‘두 번째 MOU’ 이스타, 성정은 제주항공과 다를까?



김수지 (사업부)

종합건설업체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다. 앞선 제주항공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스타항공이 두 번째 주인을 맞는다.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일가에 이어 종합건설업체 성정이 그 주인공이다. 서울 회생법원은 21일 최종 인수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미 ‘성정의 이스타항공’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향후 성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앞선 제주항공에 이은 두 번째 양해각서 체결이다. 제주항공은 2019년 12월 최대 주주 이스타홀딩스와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주식매

매계약(SPA)도 체결했다. 하지만 끝내 지난해 7월 이스타홀딩스의 선행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성정의이스타항공’이라고 판단하기엔 아직 선부르다고 보는 이유기도 하다. 성정은 최종 인수자 선정, MOU 이외에도 많은 절차가 남았다. 오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한다. 또, 양측은 상호 협의 후 계약금을 예치하고, 투자 계약을 맺는다. 채무 상환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도 다음 달 20일까지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스타항공의 회생 여부에 직원 470명의 삶이 달렸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에 의해 우선 재고용을 약속받고 이미 퇴직한 직원을 포함하면 그 중요성은 더해진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전 노선이 운항 중단

하기 전 약 1600명의 일터였다. 사실상 이번 때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스타항공의 앞날은 보장받지 못한다. 일각에선 파산까지도 점쳐진다. 성정이 반드시 제주항공의 행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다만 업계에선 성정의 자금력과 관련한 의구심이 슬슬 나오고 있다. 성정을 포함해 관계사의 총 매출이 400억원 수준인데,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25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성정이 감당하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승자의 저주’ 얘기가 나오나. 이제 믿을 건 성정 형남순 회장의 의지 뿐이다. 형 회장은 이스타항공 설립 때도 사업 참여를 검토했다고 알려졌다. 그의 손에 이스타항공의 존폐가 달렸다. /sjkim2935@



김상회의四季 지출이 싫다면

옛말에 “여자팔자는 두레박 팔자”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선은 결혼이라는 걸해야 그 말도 통할 텐데 요즘은 능력을 갖춘 아가씨들 흔히 말하는 골드미스가 대세이다. 미혼으로 남을지언정 괜히 능력 안 되는 남자 만나 시댁관계며 골치 아픈 인연에 엮이지 않겠다는 태도들이다. 그러나 여자팔자는 두레박 팔자라는 말이 성사되지도 않는 시절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여자도 남자 잘 만나야 하고 남자 역시 여자 잘 만나야 한다. 옛말에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복도 없다고 했던가. 부모덕과 자식복 배우자 운이나 형제 운과 같은 육친법은 자신의 일주를 기본으로 하여 펼쳐지는 관계여서 전체적으로 사주팔자와 운을 놓고 간별 되는 인연법이기 때문이다. 음력 정초에 가족들의 올해 신축년(辛丑年)인수를 보러 왔던 A여사는 부부자리에 축미충(丑未沖:충돌하는 불길한 오행)과 재성(財星:재물을 나타내는 오행)에 삼형살(三刑殺:세가지 흉살)이 겹쳐 들어와 좀 걱정이 되긴 했다. 이럴 때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손재수가 반드시 발생한다. 설상가상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소지도 엿보인다. 역(易)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적인 기운인 것일까. 축미형살이 일어나 결국 팔자운대로 연이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이 그렇다면 역발상적인 방법을 써보는 것이 합당하다. 역에 있어 역발상이라는 것은 손재수가 있다면 아예 내가 먼저 자선금을 기부해보라. 또한 특별히 집 안에 뭐가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조상제사 천도제를 드려보는 것은 훌륭한 결과를 얻는다. 제사 천도제를 올리는 것도 불편한 운기를 개운할 수 있는 역발상이라 할 수 있는데 지출이 싫다면 그냥 긴장하고 애태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높이는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 퍼즐 **사무라이 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간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8		2				
				7				6
7		6	5					1
	2							3
	3						1	
6					4	9		8
4					8			
				7	2			

9	6							
					5		2	4
				7			6	
							4	
8	4	9				2	1	6
	7							
	2			3				
6	9		7					8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71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817호	